

2023년 2월

10호

CHA PHARM *IN*

약대생이 쓰는 약대 이야기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편집부의 말

신민철 : 작년 한 해 무엇인가 다시 시작되고 새로운 일들도 많이 일어났던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소식 즐겁게 전달해드리는 차팜인 되겠습니다.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원재웅 :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차팜인입니다. 새로운 학기, 새로운 사람들로 설레는 시간들이 기다려지네요. 재밌게 읽어주시고 언제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승연 : 안녕하세요. 이번 차팜인에서도 다양한 소식을 담았습니다. 모든 부원들의 노력이 담긴 차팜인 즐겁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지 : 안녕하세요!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차팜인이 출간되었습니다~!! 올해도 차약이들의 소식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소정 : 차약이들의 다채로운 소식들이 가득 담긴 겨울호와 함께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민정 : 올해도 차팜인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소연 :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학교 행사도 많아지는 만큼 더 유익하고 재밌는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에도 즐겁게 감상해주세요 ㅎㅎ

임현식 : 안녕하세요! 이번 호도 재밌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ㅎ 조금 늦었지만 23년도 북 많이 받으세요!

채지은 : 차팜인이 차약이 여러분이 유익한 소식과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최우혁 : 이번 호는 전보다 더 다양한 소식들을 담고 있습니다. 재밌게 읽어주시고, 앞으로의 소식들에도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안지우 : 안녕하세요~ 새로운 소식들을 가득 담은 차팜인이 돌아왔습니다. 2023년을 맞아 새로운 학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설레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모두 따뜻한 마음을 담아 주변을 돌보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현 : 차약이들의 2022년 두번째 이야기 차팜인 겨울호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 선 :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 오고 동시에 새로운 차팜인이 완성되었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도교수

양영덕 ntsky0816@cha.ac.kr

편집장

원재웅 (약학과 18), chapharmin@naver.com

편집팀

신민철 (약학과 18), 김민정 (약학과 19), 최우혁 (약학과 19), 신 선 (약학과 22)

취재팀

이승연 (약학과 18), 채지은 (약학과 19), 안지우 (약학과 20)
원재웅 (약학과 18), 이소연 (약학과 19), 김동현 (약학과 22)
이현지 (약학과 18), 김소정 (약학과 19), 임현식 (약학과 19)

발행회차

2023년 10호

펴낸곳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교지편집부



01 목차 / 편집부의 말

02 차팜인 백일장

03 슬기로운 공강나기

04 차팜데이/화.코.세

05 약학대학 총MT

06 [인터뷰] 김은희 교수님

07 송우미식회

08 차튼토마토

09 차약 앙케이트

10 소원 풍등 날리기

11 고구마켓

12 [퀴즈] 십자말 풀이

제 2 회

CHA PHARM IN

차팜인 백일장

1. 제 2회 차팜인 백일장

이 행 시 부 문

수상작

차: 돌박이는
약: 불에 구워야 제맛!
- 22학번 이예나

차: 가워도 맛있는
약: 과 장인더
- 19학번 김예안

차: 약 19들이
약: 대 졸업만 하자...plz
- 19학번 이소연

차: 돌박이
약: 간 비싼데?
- 19학번 임하정

차: 밍 최고 수고했어
약: 학과 최고!
- 19학번 정찬희

차: 약이들아 장인
약: 과 존맛탱
- 19학번 김지우

차: 약 2행시 정도는
약: 과지
- 22학번 최우혁

차: 가운 겨울 얼어붙은 당신 마음, 내가 지을 이
약: 이 녹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 22학번 구태모

차: 창이 부딪히는 이 소리가 멎기 전까지 차
약: 의 약속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 22학번 조혜림

차: 의과대학교를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약: 학과를 다니고 나를 찾는 사람 많아졌다~
- 22학번 이현지

차: 갑다고 느껴지는 현실 앞에서
약: 간만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가 함께니까 힘내요!
- 22학번 구태모

2. 제 2회 차팜인 백일장

삼 행 시 부 문

수상작

약: 학공부
학: 이시습해도
과: 탐은 창주민영
- 19학번 정찬희

약: 속해요
학: 점에
과: 민하지 않기로 X
- 19학번 김지우

약: 학과
학: 우 여러분
과: 텅 나가실래요?
- 22학번 최우혁

약: 쟁이들도
학: 을 때는 의약품
과: 다식품
- 22학번 조혜림

약: 학과
학: 생들은 똑똑이
과: 외문의 02-333-XXXX
- 19학번 이소연

약: 사가되는 그 날
학: 수고대한 그 날
과: 연 언제쯤
찾아올까요?
- 19학번 김지우

약: 대생
학: 대하는
과:
- 19학번 김예안

약: 학과를 대표해서
학: 과장님께 정식으로 요청 드립니다.
과: 자사주세요~
- 19학번 임하정

약: 사가 되고 싶어요..
학: 교 졸업은... 할 수 있겠죠...?
과: 립지만 그래도 파이팅!
- 19학번 이소연

약: 학과에서
학: 우들과 함께 보냈던 즐거운 나날들
과: 거를 추억하며 이제 졸업을 준비하자!
- 18학번 이현지

약: 속 지키라고 했잖아!!!
학: 교가 늦게 끝나서... 미안해 ㅠ
과: 식 할 거니까 너가 다 사!
- 22학번 최서진

Question. 나에게 있어 차대 포천은 [] 다!

나에게 있어서 포천은 [본가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존재]이다. 19학번 김예안

나에게 있어서 포천은 [가끔 돌아가고 싶은 곳]이다. 19학번 김소연

나에게 있어서 포천은 [돌아보면 즐거웠던 추억만 남아있기를 바라는 장소]이다.

19학번 정찬희

19학번 임하정 나에게 있어서 포천은 [세계 최대의 도시]이다.

19학번 이소연 나에게 있어서 포천은 [행운 그 자체]이다.

19학번 김지우 나에게 있어서 포천은 [일시적 생활 터전]이다.

18학번 김은솔 나에게 있어서 포천은 [시작과 끝]이다.

18학번 이현지 나에게 있어서 포천은 [내장그래픽카드로 돌리는 고사양 게임]이다.

나에게 있어서 포천은 [그저... 삶이다..]이다. 22학번 최우혁

나에게 있어서 포천은 [정글]이다. 22학번 조혜림

나에게 있어서 포천은 [정든 곳]이다. 22학번 최서진

나에게 있어서 포천은 [유배지]이다. 22학번 구태모

즐거로운 공강나기



2022년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2022년은 알차고 행복한 한 해였기를 소망합니다. 일년을 마무리 하면서 지난 1,2학기 동안 차악이들은 공강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유채령 /20학번

Q. 주로 공강 시간에 어떤 것을 하시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저는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피곤하면 주로 잠깐 자거나 누워서 핸드폰을 하다가 왔습니다. 아니면 밥을 먹고 돌아와서 동기들과 잡담을 하거나 게임하면서 시간 보냈습니다.

Q. 다음 학기 공강시간에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A. 다음학기 공강시간에 만약 **과방**이 생기게 된다면 보드게임하고 동기들과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 과방 생겼으면!!

김지윤 /18학번

Q. 주로 공강 시간에 어떤 것을 하시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무조건 누울 곳을 찾아가서 잡니다. 도서관 **열린 마루**에서 자면서 광합성 할 수 있습니다! 날 좋으면 돛자리를 깔고 자기도 하고 공강 시간 길면 집으로 가서 자고 오기도 합니다.

Q. 다음 학기 공강시간에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A. 다음 학기에 저도 공강시간이 있으면 좋겠네요. 저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포천을 떠나서 올해는 실습을 나가기 때문입니다.

김예인 /20학번

Q. 주로 공강 시간에 어떤 것을 하시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공강시간은 주로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는데 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험기간에는 언제나 잠이 부족하고, 평소에도 느느라 잠이 부족한데 점심 먹고 공강시간은 자기 딱 좋은 시간이죠.

Q. 다음 학기 공강시간에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A. 다음학기에 **약학과 휴게실**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벌써부터 설레네요.



신선 /22학번

Q. 주로 공강 시간에 어떤 것을 하시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공강 시간에는 밥 먹는 것에 시간을 많이 쓰곤 합니다. 시간이 넉넉한 경우에는 '**덮밥zip**'이나 '**블랙홀**'에서 배달을 시켜 먹기도 하고, 가까운 **다른 학교의 학식**을 체험해보기도 하는데, 저는 덮밥zip의 간장 새우 덮밥을 강력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셔틀 버스를 기다릴 때는 학교 안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블루포트나 카페ING**, 도서관의 **열린 마루** 또는 **토의실**에서 공강을 나요! 날씨가 좋을 때는 **해솔 마당**에 돛자리를 깔고 쉬는 것도 좋아요.

Q. 다음 학기 공강시간에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A. 내년에는 차의과학대학교 학생식당을 체험해보고 싶네요 ㅎㅎ.



덮밥zip



블랙홀



카페ing



학식(대진대)



김동현 /22학번

Q. 주로 공강 시간에 어떤 것을 하시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1학년 김동현입니다. 저는 주로 공강 시간에 **블루포트** 카페에 가서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면서 유튜브를 보았는데요. 재미난 영상들을 동기들과 함께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면 공강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 갑니다! 또 잠을 자고 싶거나 조금 피곤할 때는 **열린 마루**에 가서 잠을 자기도 했는데요. 낮잠을 자면서 부족했던 체력을 공강 시간에 채우기도 하였습니다.

Q. 다음 학기 공강시간에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A. 다음 학기 공강 시간에는 동기들과 함께 송우리에 나가 카페를 가거나 학교에서 간단한 **운동** (족구, 농구)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최응재 /20학번

Q. 주로 공강 시간에 어떤 것을 하시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날씨가 좋을 때는 지하1층에 카페에 가서 **아샷추**(아이스티 샷 추가)를 주문한 뒤 지하1층에 있는 책상에 앉아서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바로 앞이 잔디밭이어서 풍경이 꽤나 예쁩니다:)

Q. 다음 학기 공강시간에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A. 다음 학기에는 공강시간에 짬짬이 시간 내어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김소정 /19학번

Q. 주로 공강 시간에 어떤 것을 하시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주로 학교나 송우리 근처에 있는 예쁜 카페를 동기들과 탐방합니다. ㅎㅎ 송우리 근처에 차로 10-20분만 나가면 **대형카페**나 예쁜 카페가 정말 많은데, 학교 생활하는 동안 최대한 많은 곳을 가보는게 목표입니다. ㅎㅎ 저는 차가 없어서 가고 싶을 때 동기들과 **택시** 4인 짖을 모아서 가는데, 송우리에서 학교가는 정도의 요금 일 때가 많아서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최근에 가 봤던 곳 중에 몇 가지추천을 드리자면!

- 1) 부용원 -고모리 저수지 근처에 있고 뷰가 정말 좋아요!! 여기서 동기들과 예쁜 뷰를 보면서 실습 보고서 썼던 기억이 있네요..ㅎㅎ
- 2) 포옥 - 대형 카페고 루프탑에서 누워있을 수 있어요. 힐링 카페입니다~~
- 3) 케렌시아 - 불멍카페인데 경치가 엄청 좋고 감성 돌습니다..
- 4) 어가길 베이커리 카페 - 크리스마스 분위기 최고였고 여기 빵 진짜 맛있어요!!!
- 5) 옛말애 - 고모리 저수지 근처 한옥 카페인데 가족들과 갔을 때 정말 좋았어요!
- 6) 제로니모 커피하우스 - 양주에 있는데 가까운 편이고 엄청 크고 화려한 카페입니다. 베이커리 종류도 많고 시험 끝나고 심심할 때 가면 좋은 곳입니다~!



1. 부용원



2. 포옥



3. 케렌시아



4. 어가길 베이커리

Q. 다음 학기 공강시간에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A. 집에서 **베이킹**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한번도 해본 적 없는데 베이킹으로 마들렌이나 브라우니 같은 디저트를 만들어서 근처 사는 동기들과 나누어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ㅎㅎ

2022

CHAPharm Day & WHITE COAT CEREMONY

일시 2022년 11월 4일
장소 차의과학대학교 현암기념관
주최 차의과학대학교 약학과

CHA
PHARM
IN

2022년 11월 4일, 차 의과학대학교 현암기념관에서 '차팜데이'와 '화이트코트세레모니'가 진행되었다. 행사일을 기준으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로 인해 국가적 애도기간으로 지정되었었기 때문에 동아리공연과 저녁식사 등이 생략되었다. 특히 많은 학우들이 기대했을 경품추첨 또한 취소되며 행사는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최근 2년간은 COVID-19으로 인해 당해 5학년과 학생회 등의 일부 인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우들은 온라인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하지만 이번 "차팜데이&화이트코트세레모니"에선 재학생 전 인원이 참석하며 현암기념관이 더욱 북적이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례가 있는 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묵념이 진행되었다. 다소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약학대학 나영화 학장의 개회사로 1부행사인 차팜데이를 시작했다.

차팜데이의 첫 순서로 재학생들의 약대 교내활동과 대외활동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세윤(18), 김은솔(18) 학우는 글로벌 약학대학 프로그램 USC 참여했던 후기를, 목현승(20) 학우는 약학연구입문을 수강한 후기에 대해 발표했다.



우수 학술포스터 시상

이후 우수 학술포스터 시상이 있었다. 고준영(17), 강민기(19), 김소연(19), 김소정(19), 황준(19) 총 5명의 학우가 수상했으며, 이중 김소정(19) 학우의 "The Determination of Hesperidin in Bojungikgintang Mix Extract Powder for Pharmacokinetic Drug-Drug Interactions"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어서 자리를 축하해주기위해 참석한 내외빈의 축사가 있었다. 차 의과학대학교 서영거 부총장, 포천시, 성남시 약사회장의 축사와 분당 차병원 약제부장의 축하영상을 마지막으로 1부행사인 차팜데이가 끝났다.



목현승(20)학우의 약연입 후기 발표



2부는 18학번이 직접 제작한 학생활동 영상과 함께 2022 화이트코트 세레모니가 시작되었다. 촬영부터 편집까지 모두 5학년 재학생의 손으로 만들어진 영상들로, 유명한 tv프로그램을 패러디해 3년간의 추억을 재치있게 담은 영상이었다.

영상이 끝난 후엔 2부행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실습가운 수여식이 있었다. 약학대학교수들이 제자들에게 직접 가운을 입혀준 후, 학생대표로 김은솔(18), 이민수(18)학우가 선서문을 낭독했다. 엄숙한 분위기에서 디오스코리데스 선서를 하며 실습지로 가기 전 약사로서의 책임감을 다시한번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Q. 최우수 학술포스터상을 수상하셨는데 소감은?

김소정(19)

A. 하계 방학 동안 감사하게도 조혜영 교수님 연구실에서 약학연구입문을 수강했는데, 연구실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상까지 받을 수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보중익기탕의 효능 성분인 헤스페리딘에 대한 함량시험을 주로 수행했는데, 만족스러운 시험결과가 나오지 않아 고생했던 경험들이 생각나네요.ㅎㅎ 아무것도 모르는 학부생한테 처음부터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주신 조혜영 교수님과 연구실 대학원 선생님들께 큰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또한 포스터 만드는 과정에서도 미숙함이 많아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이것 또한 넓은 포용력을 갖고 도움을 주신 대학원 선생님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Q. 행사에 처음 참여해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최인영(20)

가슴이 뭉클해지는 행사였습니다. 진정한 약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선배분들의 모습과, 즐거웠던 약대 2년 졸업 영상 속 모습에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다시 한번 약사란 직업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서현(22)

가운을 입은 선배님들의 모습이 멋있어 보였고 앞으로의 약대생활을 더 의미있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대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선배님들이 하신 다양한 교내 대외활동들도 해보고 싶습니다. 모든 선배님들 실습까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준원(22)

모두들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흰색 가운을 입은 선배님들을 보고 약사 같다는 생각이 들고 멋져보였습니다. 함께 지내던 시간을 뒤로한채 서로 헤어진다라는 아쉬움을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포천에서의 추억과 노력을 간직한 채 앞으로 실습에 나가서의 시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지훈(18)

Q. 행사에 직접 참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전학년이 참석한 행사는 처음이었는데, 많은 축하와 응원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선물까지 챙겨주면서 찾아와 준 후배들에게도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Q. 포천에 남겨질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A. 지금은 탈포천을 외치고 있겠지만, 막상 동기들과 헤어지는 순간이 오면 정말 많이 아쉬운 거예요 포천에서도 할 수 있는 건 많으니.. 동기들과 최대한 많은 추억을 쌓으시면 좋겠습니다!



COVID19 이후 3년만의 약학대학 총 MT - CHA Pharm In - [2022. 09. 01 ~ 09. 02]



- 출발 전 -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는 매년 학우들의 결속력과 미래 약학도로서의 사명감을 다지기 위한 총 MT를 실시한다. 총 MT에는 약학과 모든 학우들과 교수님들이 참석하시어 학생들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선후배 간의 결속력을 다지는 단합의 장을 만들게 된다.

올해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남양주 힐링캠프 펜션에서 총 MT 행사가 진행되었다. 코로나 상황으로 중단되어 있던 총 MT 행사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다시 진행된다는 점에서 올해 총 MT 행사는 많은 학우들과 교수님들께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약학대학 교육과정이 6년제로 개편된 뒤 처음 입학한 1학년(22학번) 학우들까지 참석하여 역대 총 MT 중 가장 많은 인원(약 130명)이 참여하였다. 총 MT 장소로 출발하기 전 나영화 학장님께서 전 학년에게 안전교육을 해주셨다.



남양주 힐링캠프 펜션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모곡지로 204
시설 : 개별바비큐, 온돌방, 침대방, 단체, 수영장, 비비큐장, 족구장



- 도착 후, 게임진행 -

총 MT는 총 10개의 조로 나뉘어 [골든벨 게임 → 조별 오후 게임 → 저녁식사 → 조별 저녁 게임 → 조별 친목] 시간 순서로 진행되었다.

오후 게임 여왕 피구, 모여모여모여라, 단체줄넘기, 미션릴레이, 고깔게임 등 주로 야외에서 진행되거나 다 같이 몸을 움직이는 활동적인 게임들로 구성되었다.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학우들은 열정적으로 게임에 참여하였다.



저녁 게임 과자 맞추기, 몸으로 말해요, 이어 그리기, 노래 맞추기, 판 뒤집기 게임으로 조원들 간의 협동심과 추리력, 순발력이 요구되는 게임들이었다.



평소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인기가 있던 게임들이었고, 학우들 모두 조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동하며 게임을 즐겼다. 오후 게임, 저녁 게임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둔 1,2,3등 조들에게는 미리 준비된 상품인 떡볶이와 어묵탕 밀키트, 양주, 치킨 등을 수여하였다. 골든 조는 설거지 및 뒷정리를 담당하였다.

- 소감 한마디 -

게임에 참여한 이소연(19) 학우는 “모든 조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임들로 구성되어 재미있었고, 게임을 통해 조원들과 더욱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매우 좋았다.”

김혜본(19) 학우는 “대학 입학 후 이렇게 많은 학우들이 참여한 MT가 처음인데, 다 같이 게임도 하고 맛있는 저녁도 같이 준비해서 먹으니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임현식(19) 학우는 “게임들이 정말 다채롭고 재미있어서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 저녁시간, 조별 시간 -

저녁시간에는 학생회가 준비한 삼겹살과, 목살을 조별로 앉아 구워 먹었다. **우리술**에서 협찬해 준 6종류의 막걸리(알밤, 잣, 옥수수, 고구마, 도토리, 생막걸리)로 인해 더욱더 풍요로운 저녁식사가 되었다. 조원들끼리 고기를 먹으며 이전에 한 오후 게임 후기를 나누었고, 학교생활에 대한 담소를 선후배간에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또한 협찬 받은 **미마 마스크**가 있어 안전을 지키며 행사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공식적으로 진행된 행사 마무리 후 학우들은 자유시간을 가졌다. 다채로운 일정으로 인해 바로 취침을 하는 학우들도 있었고, 밤새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학우들도 있었다. 학번, 나이 상관없이 삼삼오오 모여 친목의 장을 가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 소감 한마디2 -

총 MT를 마무리하며, 유혜리(19) 학우는 “전 학년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을 쌓아 좋은 시간이었다. 여러 게임을 구상하고 진행해 준 학생회에 감사했다.”

김지우(19) 학우는 “졸업하고도 총 MT가 생각날 만큼 좋은 추억인 것 같다. 정말 재미있었다.”, 황준(19) 학우는 “총 MT 기획부터 진행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정찬희(19) 학우는 “모든 학우들과 교수님들이 한 장소에 모여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행사인 것 같다. 내년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안지우(20) 학우는 “학생회 부원으로서 총 MT의 여러 게임을 기획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보람찬 시간이었다. 또 모든 인원이 별다른 사고 없이 재밌게 MT를 즐긴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내년에도 알찬 MT를 보내고 싶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 광고, 총애티 협찬 -



Instagram

광고 총애티 협찬 @woorisool.kr

좋아요 130 개

#우리술 #막걸리 #독생막걸리 #도토리막걸리 #알밤동동
#옥수수동동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총애티

Instagram

광고 총애티 협찬 @woorisool.kr

좋아요 130 개

#우리술 #막걸리 #독생막걸리 #도토리막걸리 #알밤동동
#옥수수동동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총애티

Miima Instagram

광고 총애티 협찬 @miima_korea

좋아요 130 개

#미마마스크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총애티
#안전한행사

Miima Instagram

광고 총애티 협찬 @miima_korea

좋아요 130 개

#미마마스크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총애티
#안전한행사

“나도 드디어 전약제 간다!”

3년만에 돌아온 Reboot 2022 전국 약대생 축제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
KOREAN PHARMACY STUDENTS' ASSOCIATION

2022년 9월 17일, 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 3년 만에 전국 약대생 축제(이하 전약제)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 전약제에 참석한 차 의과학대학교 학생은 총 113명으로 전체 인원수 대비 참여자 수가 약대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했다. 수험생 시절 누구나 꿈꿔왔던 행사인 전약제, 올해는 더욱 의미가 남달랐다. 2년 동안 진행되던 ‘온라인 전약제’는 2021년이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새로운 대면 전약제가 막을 열었다. 신입생인 1학년, 3학년은 물론 4학년, 5학년에게도 처음인 전약제에 차약이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일산으로 향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행사는 방탈출, 약퀴즈, 커스터마이징 티셔츠 만들기, 타투 스티커와 팜든벨을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또한 학교별로 다양한 부스도 마련되어 생생한 체험의 장이 열렸다. 우리 차 의과학대학교 20학번 학우들도 ‘페이스 페인팅’ 부스를 운영하였고 큰 인기를 끌어 부스 앞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어 오후 많은 약대생들이 기다렸던 디오코리 데스헌서가 이어졌다. 모두 촛불을 들고 멋진 약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헌서를 진행하였다. 참석했던 모든 학우들의 가슴 속에 좋은 약학도로 거듭나기 위한 큰 울림을 주는 시간이었다.



디오스코리데스 헌서



전약제의 다양한 행사들

기획단에서 제작한 캐릭터와 상품들은 전약제의 분위기를 더욱 활기치게 만들어주었다. 특히 메인 로고 속의 곰을 활용하여 설치된 포토존은 많은 약대생들의 이목을 끌었다. 큰 인기에 학우들은 늦은 시간까지 긴 줄을 이루어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오후 6시에는 풍물놀이 동아리의 공연을 필두로 개막식이 개최되었다. 이후 귀빈 소개와 전약협 소개 영상 시청이 이어졌으며 학교별 출범식이 진행되었다. 각 학교별로 기수가 깃발을 들고 입장하는 장면은 모든 약대생들에게 감동을 전해주었다. 특히 기수들이 위풍당당하게 깃발을 들고 입장하는 모습은 많은 학우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 20학번 최웅재 학우는 ‘내년 전약제에서 기수를 하고 싶다’라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다.

저녁에는 만남의 광장에서 다양한 약대생들이 만나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앞쪽 무대에서는 각 학교 공연 동아리의 공연이 진행되어서 참가자들의 눈과 귀가 심심할 틈이 없었다. 특히 우리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과 ‘민트밴드’도 <누구 없소>, <새들처럼>, <Monologue> 를 곡으로 밴드 공연을 진행했다. 이때 차약이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무대 앞으로 뛰어가 모두 한 마음으로 민트밴드를 응원했다. 아마추어를 능가하는 출중한 실력에 관중들도 호응을 아끼지 않았다.

킨텍스 우측 공간에서는 코인을 이용하여 주류를 교환하고, 푸드트럭을 먹기 위해 줄을 서 있는 학우들로 인해 킨텍스 내부가 늦은 새벽까지 북적거렸다. 새벽 5시경 폐막식이 이루어 졌으며 성황리에 전약제가 막을 내렸다.

올해 전약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 차약이 세명을 차팍인이 만나보았다.

인터뷰 노트

전약제 기획단장 19학번 장세용

Q1. 3년만에 첫 대면으로 열린 전약제를 기획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행사에 대해 전반적인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A1. 이번 전약제는 비대면이었던 축제가 대면으로 바뀌면서 약학 대학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22 전약제의 키워드도 Reboot로 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축제와 다르게 신입생도 2배이며 4,5학년 참가자도 많이 있습니다. 참가자가 많아진 만큼 콘텐츠를 풍부하게 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맡았던 기획단장이라는 직책은 기획단 내부적인 업무의 총괄과 외부적인 협력사와의 소통까지 전약제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체적인 업무 속도를 조절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다음 전약제 기획단장은 체력적, 정신적으로 강해서 강도 높은 업무를 버틸 수 있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웃음)

Q2. 전약제를 기획하면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2.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한다는 점과, 수능으로 새롭게 들어온 22학번 신입생도 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전약제라는 점과 동시에 새로 시작되는 전약제라는 점에서 기존 전약제와 많은 변화를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Q3. 차약이들에게 전약제가 어떤 행사로 기억됐으면 좋겠나요?

A3. 전약제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점차 잊혀지고 있던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전약제를 계기로 약대생 모두에게 이번 전약제가 '다시 가고 싶은 축제'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트밴드 회장 19학번 김예안

Q1. 4000명의 참가자 앞에서 차의과학대학교를 대표해서 밴드 공연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A1. 악보를 다 외우지 못해서 실수를 할까봐 조금은 부담이 됐었는데 1학년 학우분들의 열정에 힘입어 조금 더 편안하게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공연에서도 세션들이 실수없이 잘 연주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무대 아래서 차약이 분들의 호응이 정말 큰 힘이 되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재치있게 무대를 이끌어준 보컬 병관이형, 든든한 키보드 소연이, 에너지 넘치는 드럼 우혁이, 책임감 있는 드럼 서진이, 여러 방향으로 도전하는 키보드 승철이, 강인한 일렉 덕룡이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 만든 것 같습니다.

Q2. 공연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A2. 학기 초창기에 동아리 연습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송우리에 합주실이 따로 없어서 연습을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다행히 18학번 이승원 전회장님의 도움으로 앞으로 민트밴드가 정기적으로 밴드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민트밴드의 공연을 기대해주세요!!

전약제 기획단 19학번 정윤지

Q1. 기획단 홍보팀이 하는 일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1. 홍보팀에서는 전체 굿즈, 로고, 포스터, 책자, 조형물, 포토월 등을 디자인하고 업체 선정과 발주 또한 진행합니다. 이 중 제 업무는 전체 굿즈(입장팔찌, 부채, 스티커)를 디자인하고 업체를 선정 후 최종까지 책임지는 일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현수막 디자인도 전약제 직전에 제작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다면 예상치 못한 일이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례로, 대형업체를 선정했다가 전약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입금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발견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느라 전화만 수십통 돌렸던 기억이 있네요 ㅎㅎ..

Q2. 기획단에 참여한 전반적인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A2. 학생회 미디어국에서 2년째 일을 하고 있어서 이번 전약제가 더 배워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획단에 지원했습니다. 사실 지금에서야 정말 뿌듯한 경험이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당시에는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나고 보니까 언제 또 축제를 기획해보겠나 싶기도 하고, 다른 학교 약대 친구들과 이만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도 흔치 않은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도 기획단을 할 거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Yes'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웃음)



김은희 교수님

1. 교수님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 차의과학대학교 약학과에는 2012년 8월에 임용이 되었고, 현재 강의는 2-3학년 생화학과 4학년 예방약학, 독성학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학과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2. 지난 한 해 동안 학과장으로서 바쁜 한해를 보내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2022년 8월 학과장직을 맡자마자 약대인증평가를 준비하게 되어서 2022년 2학기는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신이 없었어요. 저도 학과장직을 맡기 전에는 학과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몰랐어요. 학과장직을 맡고 나서야 학과와 학교 본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었고, 학기 중은 물론 학생들이 없는 방학 동안에도 직전 학기 마무리와 신학기 준비를 위해서 학교 각 부처와 학과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대표적인 업무로는 학생 선발, 학생 관리, 성적 및 교과 관련 업무, 예산 업무, 강의 및 실습을 위한 시설 관리, 교수님이나 강사 선발 및 관리. 그 외 교수님들의 행정적인 업무 관리 등 학교 내에서 학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업무들을 학과 조교 선생님들과 학과장, 학장님이 수행하고 있어요. 대외적으로도 약교협, 약평원, 약사회 등과 같은 여러 단체들과 여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와 같은 일들은 학과장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고, 학장님의 진두지휘하에 학교 각 부처들과의 협업을 통해 학과 조교 선생님들과 다른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포천에서 오셔서 강의하신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포천에 왔을 때의 느낌은 어땠나요?

: 처음 포천에 왔을 때는 연구실이 있는 판교와 거리가 멀어 이동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루종일 강의하고 집에 가면 정말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구리-포천 고속도로 등 교통이 많이 좋아져서 판교에서 포천까지 1시간 정도로 이동가능하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판교와 포천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포천으로 운전해서 갈 때 온전히 혼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이동하는 1시간 동안 좋아하는 음악을 듣기도 하고, 연구나 여러 업무에 대해서 조용히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날씨 좋은 날엔 서울 근교 나들이하는 기분으로 포천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4. 교수님의 담당과목인 생화학, 독성학 등에 관심있는 학우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실험실 소개와 함께 연구의 목표, 차별점 또는 강점 등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수님 연구분야를 개척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제 실험실은 예방약학연구실로 크게 두 가지의 연구 방향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암치료에 대한 연구입니다. 소화기질환을 다 연구하고 있는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의한 위암을 포함한 위질환 연구와 대장암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장암 발병과 전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발굴하여 세포/동물/인체조직을 활용하여 그 기능과 분자생물학적 기전을 밝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기능식품 소재의 독성 연구와 비임상 시험연구입니다. 주로 식약처 개별인증을 준비하는 회사들과의 계약을 통해 건기식 소재들의 비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의 차별점 및 강점이라고 한다면, 저와 오랫동안 함께 해오고 있는 실력있는 연구교수와 성실한 대학원생들로 실험실이 구성되어 있고, 저희 실험실에서 세포/동물실험 같은 실험들뿐만 아니라 분당차병원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해 분양받은 대장암환자 조직을 보유하고 있어, 인체조직을 이용한 실험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 분위기는 제가 교육받은 대로 자유로운 편인데, 이러한 실험실 분위기 안에서 더 창의적인 결과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 연구분야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하고 싶은 연구는 많은데, 그 연구를 다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겠죠~ 아직 하고 싶은 연구를 다 하기에는 연구비도 부족하고, 그 연구를 수행할 인력도 충분하지 않지만, 무엇보다 제가 워킹맘이라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5. 연구이야기가 나왔으니 교수님의 학창시절도 궁금합니다.

교수님은 어떤 학생이셨나요?

: 여러분들과 특별히 다를 바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시험기간 되면 공부하고^^ 그러다가 학부 3학년부턴 실험실 생활을 하면서 내 길은 연구라고 의심없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박사과정부터 연구가 더 재밌어졌고, 그때는 실험실과 기숙사만 왕복하며, 학교 밖으로 몇 주일씩 안나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대통령이 탄핵된 사실도 며칠 동안 모를 정도로 세상일에 관심없이 연구에만 몰두하기도 했습니다. 박사과정, 박사후연구원 과정 동안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때도 있었지만, 다른 논문들을 보며 세운 프로젝트의 가설이 내 실험을 통해서 맞아들어갈 때, 원하던 실험 결과가 내 손으로 며칠 동안 밤새워 진행하던 실험을 통해서 나왔을 때의 그 기쁨과 희열, 그리고 그러한 연구결과들이 마침내 논문으로 출판되었을 때의 감동은 그러한 힘든 과정을 다 보상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하던 동료들과 연구는 마약과도 같더라는 얘기를 종종 하곤 했습니다.

6. 새로운 신입생, 1학년부턴 6학년 학생들까지 모두 채워져 약학과 가족들이 더더욱 많아졌습니다. 6년제로 바뀐 학습체계와 기존 학습체계가 더불어 새 학기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새로운 23년도 약학과의 운영방향은 무엇인가요?

: 올해는 처음으로 6개 학년이 모두 채워지는 해입니다. 아직 3학년부턴 6학년까지는 편입생이고, 1,2학년은 통합6년제로 교과과정은 다르지만, 다 같은 약학과 학생, 약학과 선배로서 잘 어우러지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차의과학대학교 약학과의 교육목표이자 인재상인 글로벌 역량을 가진 창의적인 약학인재 그리고 인류의 건강과 복지에 기여하고 헌신적인 전인적 약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학과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7. 마지막으로 약학과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차의과학대학교 약학과 여러분께,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크게 두 가지만 당부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 스스로 하는 것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공부할 때 교수님의 강의, 교과서, 다른 친구들의 도움, 스터디 등과 같은 여러 도움이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공부해서 이 학과에 왔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은 다들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명강의와 좋은 교재가 있어도 혼자서 스스로 그러한 지식을 자기 머리에 넣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24시간을 어떤 우선순위로 그 시간을 배분하느냐, 또 같은 시간을 책상 앞에 앉아 있더라도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약학과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공부량이 상당합니다. 그 지식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혼자서 스스로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학과에서 한 학년에 30~4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여러분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물론 성적은 상대평가로 나가기 때문에 시험에서 몇 등을 했느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이 친구들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료들이 될 거예요. 이 학과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도 원만하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내에서 화목한 가족을 갖기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합니다. 친하다고 혹은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편하다고 함부로 언행해서는 안됩니다. 결국에는 사람이라고 하죠? 원만한 인간관계와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없을 여러분의 20대!! 차의과학대학교 약학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놀고, 후회없는 6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선배들이 알려주는 포천맛집

송우미식회



서양 식탁

위치: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87 1층 서양식탁

대표메뉴: 목살필라프, 알리오올리오 파스타

평점: ★★★★★☆

서양 식탁을 아시나요? 여긴 겁.나.맛.있.습.니.다. 특히, 고슬고슬하게 양념에 볶은 밥과 육즙 가득한 목살이 어우러진 목살필라프를 추천드려요! 알리오올리오 파스타의 향긋한 마늘 맛도 정말 최고입니다. 또, 같은 메뉴가 small과 large로 나뉘어 있어, 양을 조절해서 시킬 수 있고 가격도 합리적이란 장점이 있어요! 친구들 여럿이서 함께 가서 small로 다양한 메뉴를 시키면, 뷔페가 따로 없지요~

위치: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73 (송우리,107호)

대표메뉴: 소풍경김밥

평점: ★★★★★☆

건강과 맛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고 싶다면? 소풍경으로 오세요~! 단무지와 햄을 사용하지 않아 건강하지만, 맛있는 김밥이 여기에 있습니다! 양배추로 속을 채우고 짭짤한 치즈로 맛을 내서 속이 편안하면서도 든든해요.

추천메뉴는 롤 모듬세트!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연어를부터 소고기를까지 구성이 아주 알차답니다. 연어도 초밥 전문점에서 먹는 것 같이 싱싱해요~ 강추입니다:)



소풍경

선배들이 알려주는 포천맛집

송우미식회

위치: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봉솔로1길 16-1

대표메뉴: 이모네백반(점심 메뉴), 닭갈비(저녁 메뉴)

평점: ★★★★★☆

아니 '닭갈비' 집에 왜 백반? 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 홈페이지 뒤편에 위치한 이모네닭갈비집은 닭갈비도 맛있지만, 백반도 맛있다구요~ 7천원이라는 가격에 건강하고 맛있는 10첩 반상을 즐길 수 있어요. 또, 모자란 반찬은 이모님께 말씀드리면 언제든 더 가져다주신답니다 :) 숨겨진 맛집이에요!



이모네닭갈비



위치: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죽엽산로 69-23

대표메뉴: 아보카도&쉬림프 오픈 샌드위치,
버섯 트러플 크림 파스타

평점: ★★★★★★

음~ 맛있다! 아리, 다녀오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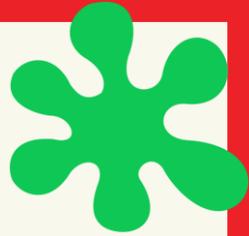
카페 아리는 송우리 외곽에 위치해 있지만, 조금 걸어도 갈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음식도 맛있고, 정원도 예쁘게 꾸며져 있고, 무엇보다 너무너무 귀여운 고양이 두 마리나 있습니다:D 멀리서 친구들이 놀러 오면 꼭 방문하는 장소 1위, 외부인들에게도 추천해 줄 만한 맛집이에요~

TMI 1: 아리는 카페 주인분 따님 성함이라고 합니다.

TMI 2: 카페 바깥 정원으로 나가서 걷다 보면, 울타리 너머로 '라떼' 라는 이름의 강아지를 만날 수도 있어요!

카페 아리

CHAtten Tomatoes®



차팍인의 인생영화 추천

 추운 날씨에 강제 집돌이, 집순이가 되어가는 겨울! 차팍인이 추천하는 영화로 무료함을 달래보는 건 어떨까?

1 쇼생크탈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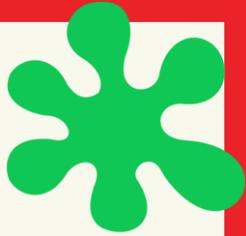
Hope is good thing. Maybe the best of things. And no good thing ever dies.

하느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는가 희망은 좋은 겁니다. 아마도 가장 좋은 것일 거예요. 그리고 절대 희망은 없어지지 않아요.



촉망 받던 은행 부지점장 '앤디' 는 아내와 그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받고 쇼생크 교도소에 수감된다. 쇼생크 교도소에는 강력범들이 수감되어있고, 이곳에서 재소자들은 짐승 취급 당하고, 혹여 간수 눈에 잘못 보였다가는 죽음을 당하기도 한다.

'앤디' 는 처음엔 교도소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지만, 교도소 내 모든 물건을 구해주는 '레드' 와 친해지며 교도소 생활에 적응해나간다. 그러던 중, 간수의 세금 면제를 도와주며 간수들의 비공식 회계사로 일하게 되고, 마침내는 교도소장의 검은 돈까지 관리하게 된다. 이후 새로운 재소자 '토미' 로부터 '앤디' 의 무죄를 입증할 기회를 얻지만, 교도소장은 '앤디' 를 독방에 가두고 '토미' 를 무참히 죽여버린다. 삶의 의욕을 잃고 살아가던 '앤디' 는 어느 날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레드' 에게 혹시 쇼생크에서 나가게 된다면 자신이 말한 어느 장소를 찾아가 달라고 부탁을 하고, 마치 목을 매려는 살마처럼 6피트(1.8m)짜리 밧줄을 얻어 자신의 감방으로 들어가는데...



2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You are not trying. You are whining. Wake up, sweetheart
너는 노력하고 있는게 아니야. 너는 징징대고 있는거야. 정신차려.

패션에는 관심이 없지만 유명 패션 매거진 '런웨이'에서 1년간 버틴 후 경력을 이용해 유명 저널리스트가 되려는 '앤드리아'는 입사 첫날부터 까다로운 편집장 '미란다' 밑에서 엄청난 고군분투를 하게 된다. 시간 내에 불가능한 말도 안되는 요구들과 온갖 심부름을 하고, 패션 지적까지 받으며 앤드리아의 직장생활은 온통 구박만 받으며 진행되고 있었다. 어느날, '미란다'에게 온갖 비난을 받고 크게 상처를 받은 '앤드리아'는 회사 상사인 '나이젤'에게 조언을 구한다. '앤드리아'는 '나이젤'의 조언을 듣고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본인을 바꿔나간다. 제일 먼저 늘 지적받던 패션부터 바꿔나가면서 화려한 변신에 성공하는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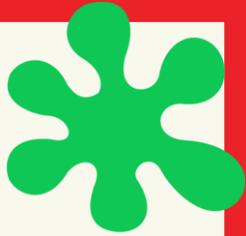


3 라이프 오브 파이

Life is about spending it.. I'm just sorry I couldn't say hello.
삶이란 건 원래 보내는 거라고.. 그저 인사를 못한 게 아쉬울 뿐.



주인공 '파이'의 부모님은 인도에서 동물원을 운영했지만 국가의 지원이 끊기면서 동물원이 파산한다. '파이'의 가족들은 동물들을 싣고 캐나다로 이주하기 위해 배를 타게 된다. 그러나 태평양 한 가운데서 폭풍우에 배가 침몰하고 '파이'는 간신히 구명보트에 오른다. '파이'가 정신을 차려보니 구명보트에는 다리를 다친 얼룩말, 오랑우탄, 하이에나, 그리고 몰래 숨어있는 벵골 호랑이 '리처드 파커'가 타고있다. 생명을 건졌지만 구명보트 안에서 또 다른 위험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하이에나는 얼룩말과 오랑우탄을 잡아먹고, '파이'마저 위태로워진 순간 '리처드 파커'가 나타나 하이에나를 잡아먹게 된다. 결국 '파이'와 호랑이 '리처드 파커'만이 배에 남게 되고, '파이'는 '리처드 파커'를 죽이기 위해 애쓰지만 무리라는 것을 깨닫고, 공생하는 방법을 찾아가는데...



4 레미제라블

To love another person is to see the face of God.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은 마치 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쳤다는 이유로 한 순간에 전과자가 되어버린다. 사람들은 '장발장'이 전과자라는 이유로 '장발장'을 미워하지만, 우연히 만난 신부의 손길 아래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결심하게 된다. '장발장'은 그 이후 '마들렌'이라는 새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지내고, 운명의 여인 '판틴'을 만나게 된다. '판틴'은 죽음을 눈앞에 두면서 자신의 딸 '코제트'를 장발장에게 부탁한다. 하지만 '마들렌'을 의심하고 뒷조사 중이던 경감 '자베르'에 의해 다시 체포된다. 이후 '장발장'은 '코제트'를 다시 만나기 위해 수영을 해서 탈옥을 감행하는데...



5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To see the world, things dangerous to come to. To see behind the walls, draw closer.
To find each other. And to feel. That is the purpose of life.

세상을 보고 무수한 장애물을 넘어 벽을 허물고 더 가까이 다가가,
서로를 알아가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다.



16년동안 잡지사 Life의 사진 현상 담당으로 일해 온 월터. 하고 싶은 말이나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도 직접 하기보단 상상으로 해결하는 그의 유일한 취미는 "상상 멱 때리기"이다. 인맥이라고는 짝사랑 신입사원 세릴, 인터넷 데이팅 사이트 관리자 토드, 그리고 사진으로만 대화해 본 사진작가 손인 그에게 잡지사의 구조조정이라는 위기가 찾아온다. 잡지 마지막 호의 출간을 앞두고 손에게 "인생의 정수가 담겨있다"는 잡지의 표지 사진을 받았지만, 사라져버린 사진의 필름! 자신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월터는 서둘러 사진을 찾아야 한다. 세릴의 도움으로 단서를 찾은 월터는 평생 떠나본 적 없는 일상을 떠나 그린란드로 향하게 되는데... 모험은 상상속에서만 있던 일이던 그가 이 모험을 무사히 마치고 잡지의 표지를 장식할 수 있을까?

♡ 차악 앙케이트 ♡

이소연 기자



가장 눈이 높을 것 같은 동기는?



35%
오해입니다.
많이
대시해주세요.

19 곽준구



33%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근데
식장에서 실망하겠네
애들아. 결혼 안할게

20 배지수



27%
오해입니다...
저 눈 안 높아요!!

22 김민석



더 알아가 보고 싶은 사람은?



44%
제가 좀 많이 조용했었죠..
그래도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8 이현희



23%
뽐아주신 분들
누구신가요 ㅎㅎ 새해
더 친해져요:)

19 안주영



43%
해치지 않아요. ㅎㅎ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 양상오



31%
관심 정말 감사합니다!

22 강유민



한번쯤 이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다! 하는 사람은?



저의 어떤 삶이
궁금하신가요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연락 주시면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경험시켜드리겠습니다
하하하!

18 김주영



32%
저도 제가 좋아요

19 황준



20 이재현

43%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가득
채워지게...



33%
동기들이 좋게 봐준거
같아서 고맙네요.. ㅎㅎ

22 강준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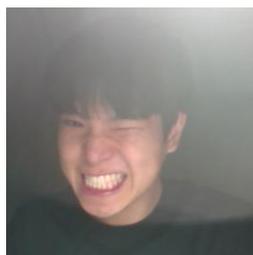


플러팅을 가장 잘 할 것 같은 사람은?



50%
ㅋㅋㅋ 건포의 계약 같은데..?
실제로는 다릅니다. 플러팅의 플자도 몰라요
^^... 뽐아준 동기들 모두 고맙고 실습
화이팅합니다!!!!

18 박선우



32%
오늘 뭐해?

19 최민준



43%
고백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20 이재현



23%
플러팅? 그게 뭐죠??
그런 거 몰라요...

22 정희찬

차
팜
인
소
원
풍
등

2
0
2
3

술 줄이기

졸시 통과



만수무강

무사 졸업..
- 장하린

운동 열심히 해서
체력 기르기!

헬스장 기부천사는
이제 그만

무사 졸업 기원해봅니다!
- 이소연

제발 행복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건강하고 원하는거 다
얻고 살자

차약이들끼리 사이 좋게 건강하
게 잘 지내고 너무 힘들지 않기

2023년에는 내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 외적으로는 평화로운 한 해
이길 바랍니다 ☺

- 이현지

올해는 잔잔바리보다가 뭐
안하고 가늘고 길게 건강하게
무난하게 살게 해주세요

- 이진우

새해에는 아침형인간이
되게 해주세요
-익명의 미라클모닝

모두의 안녕과 건강 그리고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완성되는 한해가 되
었으면 합니다.

- 원재웅

올해 하는 모든 일 모두 잘 풀
리게 해주세요 ㅎㅎ
운동해서 건강한 몸 만들기👏
걱정할일 없이 무탈하고 행복
한 한해가 되길

- 풀리미

새로 시작하는 2023년
도에는 좋은 일이 23개
씩 생겼으면 좋겠어요!!

- 신민철

운전면허 꼭 따기!!!
그리고 곧 군대를 갈 남자친구
와 잘 지내기!!!

- 최서진

보고 싶은 사람 많이 보고,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2023년도 건강하쟈!!

공부좀 그만열심히해라
인간들아 이러다 죽는다...

- 조한규

차약이들 모두가 건강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 김민정

올 한해 아프지 말고 건강
하게 보내기!!

- 차야기

내년엔 꼭 운동해야징

- 유채령

행복하고 성공적인
한 해가 되길!!!

아침 일찍 일어나는거
제발 적응하기

운동 등록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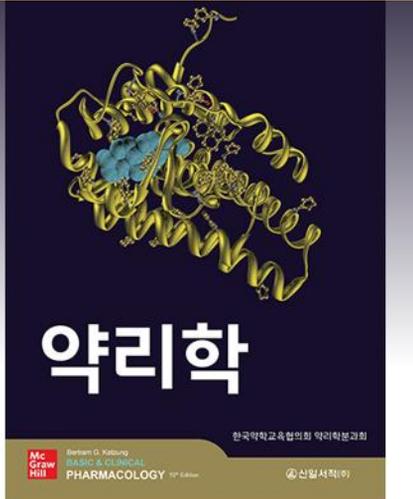
- 신 비

행복하게 살기

- 배주현

제에발 내년
연말에 들어서

약학과 학우들의 중고 거래 장터, 고구마켓



김수완무 99.9°C ☺

약물학 전공서(약리학, 신일복스, 최신개정판 15판)

본가에 책이 있어서 일단 전공책 표지사진만 올렸는데.. 신판이고, 새책이나 다름 없습니다^^ 필기도 없고 깨끗합니다! 원가 75000원인 전공책입니다! 구매하시면 약물학1,2 모두 에이쁠받은 비결도 살짝 전수해드릴게요 ㅎㅎ..

♥ 39,000원 개강 후 차의과학대학교



닉네임 99.9°C ☺

의약품합성학(제1권+제2권)

의약품제조화학 책입니다. 거의 새 건데 가끔 연필로 필기돼있어요.

♥ 30,000원 대경중학교 앞



Harmacy 99.9°C ☺

미니화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미니화로입니다. 미니화로이긴 해도 1인용으로 사용하기엔 충분해요! 자취방에서나 캠핑 갔을 때 사용하면 감성도 챙기고~ 맛도 챙기고~ 저는 캠핑도 안 가고 집에서 요리도 잘 안 해서 판매해요! 딱 한 번 사용했고, 고체 연료도 함께 드립니다:) 역삼역으로 오실 경우 할인도 가능해요!약ㅎ~

♥ 9,000원 서울 역삼역, 잠실역

✓ 이 점은 미리 유의해주세요! ✓

1. 원하는 물품이 있으면 담당 기자 이현지(010-5422-2954)에게 연락 주세요.
2. 물품명을 알려 주시면 판매자의 연락처를 구매자분께 알려드립니다.
3. 거래 장소 및 일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합의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4. 중고거래의 특성상 교환 및 환불이 어렵습니다. 다들 같은 약학과 학우분들이니,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양심적인 거래 부탁드립니다:)

퀴즈풀고 선물 받자!



차팜인 십자말풀이

🐾 세로 열쇠

- 1 차의과학대학교 과학관 앞에는 넓은 잔디밭의 이름
- 2 2019년 12월 중국 우안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된 바이러스의 이름
- 3 실무실습을 나가기 전 이 행사에서 전문약사로서 갖춰야 할 조항들을 선서한다. 이 행사의 줄임말
- 4 지난 1년간 약학대학에서 있었던 소식들을 함께 공유하고 졸업하신 선배님들을 포함한 모든 약학대학 동문과 소통하는 행사
- 5 2년 만에 일산 킨텍스에서 대면으로 진행되었던 약대생들의 축제
- 6 차의과학대학교 정류장에 오는 버스 중 빨간색 버스의 번호
- 7 차의과학대학교 약학과 밴드동아리의 이름
- 8 화이트코트 세레머니 행사를 진행했던 장소로 현암도서관, 인공암벽장, 대강장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이 구비된 장소
- 9 약학대학 12대 학생회 'CHArming'이 선배와 동기 교류를 위해 기획한 행사의 이름
- 10 스페인어로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뜻하는 말로 짧은 패스를 빠르게 주고받는 축구 경기 전술

🐾 가로 열쇠

- 1 부신 결절에서 생성되는 부신결절 호르몬으로 탄수화물을 간에서 글리코젠으로 저장하고, 단백질과 지질에서 당질을 만드는 작용을 돕는 호르몬
- 2 차의과학대학교 약학과 학장님의 성함
- 3 차의과학대학교 약학과 축구동아리의 이름
- 4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의 뜻이 통한다.'를 뜻하는 사자성어
- 5 차의과학대학교 현암제에 출연한 아티스트로 폰서트, 그라데이션, 정이라고 하자 등으로 유명한 아티스트
- 6 볼링에서 제1투로 핀을 전부 쓰러트리는 것을 뜻하는 단어
- 7 약학대학 학생들의 임상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관 3층에 지어진 장소 (차팜인 9오차 참고)
- 8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 외국과의 사이에서 행해지는 장기자금의 융통, 즉 정부와 정부 간의 대차를 의미하는 말
- 9 2022년 FIFA 월드컵 대회에서 3위를 한 국가
- 10 2022년 FIFA 월드컵의 개최국

정답은 다음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의 답안을 <차팜인>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1만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chapharmin@naver.com

차팜인을 후원해주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차팜인 10호 즐겁게 보셨나요? 차팜인은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려 만드는 소식지입니다. 발간을 이어 가면서,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카카오뱅크 3333-23-3713704 (예금주: 이승연)

보내주시는 소중한 마음, 알뜰히 사용하여 더 좋은 지면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apharmin@naver.com / 010-9155-6150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약학대학 소식지 <CHA PHARM IN>은 차약인들이 직접 차약인들의 소식을 담아, 차약인들과 나누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차약인들과 나누고 싶은 소식이라면, 어떤 것이든 환영합니다. 짧은 수필, 나누고 싶은 정보, 재밌게 읽은 책에 대한 소개, 방학 기간 동안 다녀온 여행의 기록, 소중히 그린 그림, 사진, 만화, 문학 등 형식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면이 허락하는 한계 안에서 최대한 많은 내용을 실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주변의 소식지 편집위원이나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기고해주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답례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약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CHA PHARM IN> 편집장 원재웅
chapharmin@naver.com / 010-2418-5798

